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1 비공개 전문가포럼

북·중경협 의 실태와 향후 전망

- 일시 | 2011년 3월 8일 (화) 오후 2:00-5:3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02-6925-0521)

● 프로그램 ●

14:00	개 회
	사 회 권영경 통일연구원 교수
14:15	발 표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실태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4:35	전체토론 1
	(토론자 가나다순)
	남문희 시사IN 기자
	안병민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센터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5:40	휴 식
15:55	발 표 2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전망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16:15	전체토론 2
17:20	닫는말
17:30	폐 회

- 03 발 표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실태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08 전체토론 1
- 19 발 표 2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전망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 29 전체토론 2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북·중 경제협력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2007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남북교역과 달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래의 급진적 통일담론에 가려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중경협이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는 비공개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10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1 비공개 전문가포럼
북중경협의 실태와 향후전망

퍼낸날 2011년 10월 4일 | 퍼낸곳 (재) 평화재단 | (우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 2층
전 화 02-6925-0521 | 전송 02-581-4077 | pityuzi@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사회자 모두 발언

사회자: 평화재단의 올해 첫 번째 비공개 전문가포럼이다. 현재 북중 간 경제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누적된 정보에 대한 우려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정말 현실적인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할 때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북중 간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끼리도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공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오늘 포럼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포럼은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토대로 후에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집을 기반으로 정책 당국에 제안할 과제들은 제안할 것이다. 그러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고 차후 자료집 발간 시 제하였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럼 먼저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20여 분 동안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실태를 발제해주시겠다.

발표자 모두 발언

발표자: 먼저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평화재단에 감사드린다. 귀한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아직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상황인데 내로라하시는 전문가들 앞에서 발제를 맡게 돼 영광스럽고 떨리기도 한다. 특별한 논의(argument)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오히려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발 표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실태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문을 녹취록으로 대체

북·중경협 실태를 다룰 때 북한경제, 북중경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계자료이다. 그나마 가장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역 데이터다. 2009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세계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년 대비 10.5% 줄어든 수치로 나타난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수입 대비 수출이 2~2.5배쯤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적자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북중 교역액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교역량 자체는 줄어들었으나 남북교역을 제외한 약 78.5%가 북중교역이다. 양적으로는 줄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북중 교역구조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지속됐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10년도 북중무역 데이터를 보시면 2009년보다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 대비 29.3% 증가했다. 교역액만으로 따지면 34억 7000만 달러 정도의 수치이다. 수출은 10억 달러, 수입은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는 점이 큰 틀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월별 교역 데이터를 보면 연초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있다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3억~4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중교역은 이같이 증가 추세에 있다.

남북교역은 어떤지 살펴보겠다. 남북교역액은 2010년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9억 2000만 달러였다. 양적 측면에서 2009년 대비 3억~4억 달러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내부적인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 비중이 굉장히 확대됐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비중이 남북교역에서 약 56%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 75%로 증가했다. 약 2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개성공단 위주로 남북교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1월 데이터를 보면 남북교역 수치는 제로에 가깝다. 개성공단에서만 남북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중교역과 남북교역을 비교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북중교역이 남북교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경우 한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 정도로 높는데 양적 교류는 높아졌다.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위주의 교역이 증가한 반면 북중교역은 일반적인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북중교역은 여전히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북교역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남북교역에서도 개성공단의 특성상 이를 순수한 교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중교역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측면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북중교역이 전년 대비 4억 달러 증가했는데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외환소득 감소분을 이런 측면에서 만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주로 무연탄, 철광석)이 약 5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철과 비금속을 모두 포함하면 70% 이상의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역뿐만 아니라 광물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주요 광물투자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200여 종의 광물이 있고, 이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44여 종이라고 한다. 이 44여 종 광물의 경제적 가치는 6000조~700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굉장히 막대한 액수다. 중국은 2004~2005년부터 북한의 광물광산 채굴권을 확보하는 데 활발히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금액은 알려진 계약으로만 5390억 원 정도이다. 이면에는 다른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식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식량 역시 대중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료를 제시했고, 자체적으로도 수급 전망을 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44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소요량은

535만 톤 정도이다. 그러므로 87만 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양이 수급 부족의 수치다.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높은 약 100만 톤 정도라고 보고 있다. 지금껏 중국에서 약 3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도 50만~8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식량 수급이 부족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훈춘, 도문은 중장비로 가득하다. 2009년도 하반기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한 후 이러한 흐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의 나진,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북중경협이 성급, 민간기업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국가급 SOC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과거에는 낮은 단계의 경협이 이뤄져 중국이 북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국가급으로 체결되다 보니 중국에서 확실하게 SOC개발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해 특구나 항구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했을 때 많은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3성 개발과 함께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다.

개발지 중 압록강 지역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12월 31일에 착공식이 있었는데 3년여의 기간 동안 30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액수를 모두 중국에서 부담한다. 북중교역품의 70%가 단동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압록강 제1교가 건설되면 북중교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압록강 제1교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 나진항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진항은 중국이 부두를 수리하면서 독점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협이 이뤄지고 있다. 동북3성 개발과 함께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급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북중경협이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정부에서 남북경협을 자료상으로 유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나 수치상으로는 착시현상이 있다. 남북경협은 거의 개성공단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착시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반입반출하는 액수는 늘어났으나 2011년 1월의 남북경협 수치를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이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싶다. 세 번째로 북중경협 확대로 북한 지하자원의 유출이 심각하다.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 지하자원이 혈값에 많이 매각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북중경협이 질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북한에 도로·항구 등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작은 단위에서 이뤄지던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의 SOC개발이 상당 부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북중경협이 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확대되는 흐름과 관련해 남북관계 악화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이 모든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추세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교역의 50% 이상을 의존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에 이처럼 의존하고 있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북한을 길들이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다.’ 등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2단계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1단계 사업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현상을 우려하는 면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P



권영경 님(좌) 최성근 님(우)

전체토론 1

사회자: 권영경

토론자: 남문희, 안병민, 임강택, 임수호, 임을출, 장용훈, 정낙근, 조봉현

토론문

북·중 경제협력 확대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제 제기: 북·중 경제협력 심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중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의 심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주요 자원에 대한 중국자본의 선점(싹쓸이), 북한경제의 중국 제4성화 등.
 - 이러한 우려는 장기화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평가 작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중국의 변경지역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필요

- 우리 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을 양국의 정치관계 개선에 따른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북·중 경제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실 그동안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주변 국가와의 경제관계 확대 기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중 경제관계를 중국의 변경지역 경제관계라는 일반적인 특성과 북한이 내포하고 있는 지정·지경학적 특수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북·중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어

○ 북·중 경제관계 관련 기사들은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예민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계획 및 논의 단계에서 흘러나오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 또한 중국의 동북3성, 특히 길림성과 요령성의 경우에는 중국 중앙정부와 민간자본의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고, 북한도 외자유치에 활용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양자 간 경제협력 문제를 과장해 홍보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북·중 간 경제협력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에 따라 대북 투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 사실은 투자사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둘째, 북한의 중국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으로, 경제 문제 해결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의 필요성으로 외국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그동안 북·중 경제관계는 중국 소비재나 북한의 광산물 등 일차산품 거래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은 산업기반시설 등 자본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경제에 의존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가 대규모로 본격화되려면 북한의 사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다양한 움직임이 있음에도 당분간 제한적·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중 경제관계를 보다 경제적·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점에서 북·중 양측 당국이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북한의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치·외교·안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주변국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중국과 협력적 관계의 구축

○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 경제관계를 대립적·경쟁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물론 이러한 면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남북중 3각 관계를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 경제관계를 협력적·보완적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경제 문제 해결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지역의 빈곤해소 및 경제적 발전이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양국 전문가들 간의 공동 연구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중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는 한국자본이 중국 동북3성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대한 공동 진출을 위한 중국기업과의 협력 틀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토론 녹취록

사회자: 최성근 박사님께서 북중경협 현황과 실태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다. 그러면 최 박사님의 발제를 기초로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세 가지 정도 던져보려고 한다. 첫 번째 주제는 34억 달러라고 하는 양적인 무역실태 속에 담긴 북중교역의 구조적·질적 내용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 남북교역 중단이 실제로 북중교역을 대체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토론하고 싶다. 세 번째는 북중 간 접경지대인 서쪽동쪽 지역에서 투자협력 실태와 인프라 연결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연합뉴스를 통해 뉴스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자리에는 현장에도 다녀오신 정 통한 분들이 많으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실태의 상황을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양적 구조가 안고 있는 내용들을 질적으로 분석을 하였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 먼저 이 문제는 임강택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임수호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임강택: 권영경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세 가지 중점적 토론 방향을 포괄하여 우리는 북중경협 확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포괄적인 접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북중경협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추적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미흡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파편적이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의나 인식들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북중 경제협력 문제를 북한과 중국의 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중국과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살펴봐야 훨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빠르게 경제 발전하면서 모든 국가와의 교역이 증대되고 주변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북중관계에 국한된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북중 간 특수성이 얼마나 반

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의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 하나로 훈춘은 외견상 여전히 2~3년 전과 차이가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북중경협은 우리의 우려가 너무 앞선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국가 간 관계라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북중경협 확대 움직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최근의 정황을 보면 북중관계가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중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의 경쟁구도를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북중관계가 발전되어 구조적으로 정착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틈이나 가능성을 줄인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보다는 북중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북중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보완해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반 구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중관계와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강택 님

사회자: 현재 교역구조의 양적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어떤 내용성을 띠고 있는지 임수호 박사님께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임수호: 일단은 과거의 무역 데이터에서 30%나 50%나 하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중국 세관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으로 바뀌는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조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북한의 자원이나 저임금을 활용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최성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남한에서 했던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생산과정이 상당히 중국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언론에 나온 화폐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대한 종속이나 즉, 구조적 의존의 완성이 임박하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종속화라는 표현은 과장되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국과 북한의 의도를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에 중국이 개발하는 것은 북중 접경 지역이다. 즉, 동북3성 개발의 출로를 위한 통로개발을 위한 것이지 북한 내부의 인프라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자국의 필요에 의해,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실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경수로 공사가 300억 달러 정도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한 형태의 경제예속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자: 임수호 박사께서는 질적으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했다. 중국 출장 중이신 OO 박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5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단가가 올라간 반면, 수입단가는 하락함으로써 북한교역에서의 무역조건이 북한 측에 유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결국 북중교역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수출단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우호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봉현 박사님께서 보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하다.

조봉현: 우선 시작하기 전에 북중 협력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북중 경제협력의 경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란하기만 했을 뿐 실제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과거의

북중협력은 북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필요성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에는 기업들이 판단하여 무역과 투자를 하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제협력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요즘 큰 틀에서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투망형 경제라고 생각한다. 위쪽으로 나진-선봉 지역, 동해 쪽으로 청진항, 중간쯤으로 신의주 접경 지역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남포 지역도 지켜보고 있다. 거기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망을 던져서 북한의 나진, 선봉 쪽 동해로 그물이 가고, 신의주 쪽으로도 가고 남포쪽으로도 가면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커버하는 형태로 중국은 경제적 목적과 대(對)한반도 경제적 파워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해 북중 간 여러 가지 투자 협력을 보면 대략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500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작년에는 그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많은 부분에서 시작되었고, 기초단계는 끝난 곳도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았을 때 북중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이 외 부분은 차후 말씀 드리겠다.

사회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협력의 실태와 현장에 대한 확인 부분을 안병민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남문희 기자님과 장용훈 기자님 순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안병민: 2010년 11월 물자지원을 위해 신의주에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곡된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이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은 왜곡된 것이 있다.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80~100k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전력과 철도, 항만 인프라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기업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광산 지역에 대한 개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은 비교적 소규모 기업이다. 자기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사실보다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중 간 교통물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이 작년에 후진타오가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통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무역 수출입항 교통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하면 동북지역에 늘어나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북한이든 러시아든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면서까지 물동량을 빼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교통혁명 시대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다롄항 같은 지역은 컨테이너 부두 다리 옆에 석탄가루 등이 즐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중국이 북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시적인 접근일 뿐 큰 그림에서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문희: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2010년 12월 23일 중요한 북중 간 합의사항이 나왔다. 나진항 4, 5호 부두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움직임이지 중국 정부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다시피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북중 접경지역에 가서 보도한 내용이 정말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적이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중경협에 대해 왜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가 하는 문제와 북중 간 경제협력에서 나진선봉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진행 단계가 본격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이다.

우선 정보의 혼란이 왜 발생하는지 보면, 연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대북사업을 했던 중국 사람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북한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특히 최근 전개되는 상황은 잘 모르고 있었다. 한국의 현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중관계를 폄하하여야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그래서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도문이나 훈춘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였으나 직접 가서 부딪친 뉴스는 길림성에서 52명의 고찰단을 파견하였다는 소식이었다. 후속작업을 위한 고찰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장춘소재의 기업들이 나진지역에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OO회사는 장춘에서 최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나진에 부품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직접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연결·용정·도문은

최전선이고 훈춘은 창구라는 표현이 있다. 이 당시에는 계획이 초반기였기 때문에 연결·용장도문 수준에서의 접근이었다. 또 하나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돌아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점이다.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만나보면 이제 기회가 왔다고 말한다. 일종의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초에 북한에서 무언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용훈: 특과원이라는 직업상 위의 문제를 많이 접한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을 만나면 북중 경제협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때문에 별것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추론이다. 분명히 북중관계가 경제협력이 붕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이다. 북한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 북중관계는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말은 많은데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정낙근 님 (왼쪽) 장용훈 님(오른쪽)

그러나 2009년 이후의 북중관계는 다르다. 미국 조사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중국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다. 이를 보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역교역도 2010년 1월에 비하여 2011년 1월, 2.3배 정도 늘었다. 올해 1월 수치의 경우 1월은 무역액이 제일 적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교역이 한참 좋을 때와 비슷한 수치였다. 또한 눈에 보이는 공식무역도 중요하지만 비공식무역과 교역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무역은 확대되고 있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북중 간 정치적 관계를 보면 지금만큼 좋았을 때가 없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 중국의 인사들을 보면 북한에서 김정일을 꼭 만난다. 김정일이 중국대사들을 수시로 부른다. 부임할 때 따로 만나기도 하고, 신년음악회에서 잔치를 벌여줄 정도다. 정치만 놓고 보면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더 큰 우려가 된다.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면 정치적 의존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중 간 경제협력과 남북 간 경제협력은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중 경제협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나라 간 교역이 별것 없으니 남북관계는 천천히 해결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북중 간 경제규모가 늘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절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는 우리가 북중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녀 놓고 있는 상태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TC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에서 경의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끔찍한 일이다. P

발 표 2

사회자 모두 발언

사회자: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다. 첫 번째 세션에서의 토론은 최근의 북중경협 실태와 현황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중경협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향후 북중경협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대응과제를 가져야 할 것지를 주제로 배종렬 박사님께서 20여 분 정도 발제해주시겠다. 그리고 발제가 끝난 후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청중석(floor)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 배종렬 박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린다.

발표자 모두 발언

발표자: 반갑습니다. 저에게 북중경협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현 북중경협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니 전망에 대한 부분의 양이 많지 않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발 표 2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전망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발 표 문

□ 분석의 전제

- 향후 北中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은 1)대량살상무기를 중시하는 북한의 선군사상은 계속 유지되고, 2)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3)'장길도(長吉圖)' 등 중국의 동북삼성개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
- 추론의 기본 자료는 2007년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의 남북한 및 北中 경제협력 동향이 며, 특히 천안함 사건(2010. 3) 이후 남북한 및 北中 경제협력의 추세를 중시.

□ 北中 경제협력 전망

1)산업품목(産業品目)적 특성

- 무연탄(HS2601), 철광석(HS2701) 등의 대중수출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광물성 생산 품(HS25+ 26+ 27) 중심의 무역구조는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 요령성을 창구로 한 **봉제 의류 분야 경공업 제품의 대중수출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표 1> 및 <그림 1> 참조).
-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었던 2002년에 30.6%에 불과했던 광물성 생산품의 對中

무역의존도는 2009년부터 수출입 모두 90%대로 진입.

- 특히 천안함 사건(2010. 3) 이후에는 의류를 중심으로 한 비광물성 생산품의 대중수출이 급증.

<표 1> 철광석·무연탄·의류의 대중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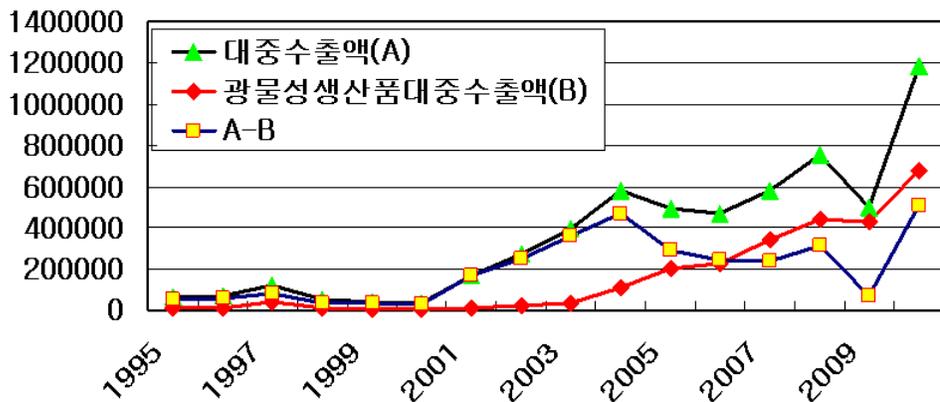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년도/구분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A: 철광석(HS2601) (A/F)	25,002 (8.73)	54,950 (18.61)	97,526 (30.00)	74,733 (17.42)	27,395 (7.79)	-	63,445 (18.23)	130,871 (15.58)
B: 무연탄(HS2701) (B/F)	101,887 (35.59)	60,732 (20.57)	66,664 (20.51)	134,609 (31.38)	167,119 (47.50)	-	68,689 (19.74)	321,716 (38.30)
C: 철광석 + 무연탄 (C/F)	126,889 (36.33)	115,682 (39.18)	164,190 (50.51)	209,342 (48.80)	194,514 (55.29)	-	132,134 (37.97)	452,587 (53.89)
D: 일반의류(HS62) (D/F)	21,811 (7.62)	38,559 (13.06)	30,275 (9.31)	47,021 (10.96)	36,135 (10.27)	-	43,039 (12.37)	117,538 (13.99)
E: 편물의류(HS61) (E/F)	2,679 (0.94)	3,603 (1.22)	4,973 (1.53)	5,459 (1.27)	3,709 (1.05)	-	7,240 (2.08)	18,600 (2.21)
F: 전체 대중 수출액	286,283 (100.00)	295,238 (100.00)	325,049 (100.00)	428,997 (100.00)	351,821 (100.00)	-	347,982 (100.00)	839,880 (100.00)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

<그림 1> 광물성 생산품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수출(A-B)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

2) 중국의 성별 역학구조 특성

- 요령상·길림상·흑룡강성 등 동북3성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동북3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표 2> 참조).
- 7·1경제관리조치가 시행될 무렵 90%대였던 동북3성의 위상은 2004년에는 80%대로, 2005년에는 70%대로, 2007년에는 60%대로, 그리고 2010년에는 50%대로 하락.
- ※ 무연탄(HS2601)과 철광석(HS2701)을 제외할 경우 2010년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동북3성의 비중은 88.86%(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수출 5억 8,472만 달러 중 동북3성의 수출액은 1억 2,216만 달러)로 나타나 **동북3성의 비중 저하는 산동성**(무연탄 2억 555만 달러), **하북성**(무연탄 1억 1,060만 달러), **장쑤성**(철광석 6,783만 달러), **산둥성**(3,051만 달러) 등 **비동북3성 지역에 대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 증가에 기인**.

<표 2> 북한의 對동북3성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중 무역	전체	738,172	1,022,927	1,385,206	1,580,243	1,536,806	1,973,974	2,787,279	2,680,734	3,465,678
	수입	467,309	627,583	799,503	1,081,103	1,117,990	1,392,453	2,033,233	1,887,686	2,277,816
	수출	270,863	395,344	585,703	499,140	418,816	581,521	754,046	793,048	1,187,862
동북 삼성 합계	전체 (무역비중)	580,691 (78.67)	785,512 (76.79)	1,004,202 (72.49)	1,061,227 (67.16)	1,005,146 (65.40)	1,360,317 (68.91)	2,106,327 (75.57)	-	2,252,499 (64.99)
	수입 (수입비중)	327,373 (70.05)	412,729 (65.76)	507,066 (63.42)	707,189 (65.41)	702,633 (62.85)	982,835 (70.58)	1,567,778 (77.11)	-	1,594,357 (69.99)
	수출 (수출비중)	253,318 (93.52)	372,783 (94.29)	497,136 (84.88)	354,038 (70.93)	302,513 (72.23)	377,482 (64.91)	538,549 (71.42)	-	658,142 (5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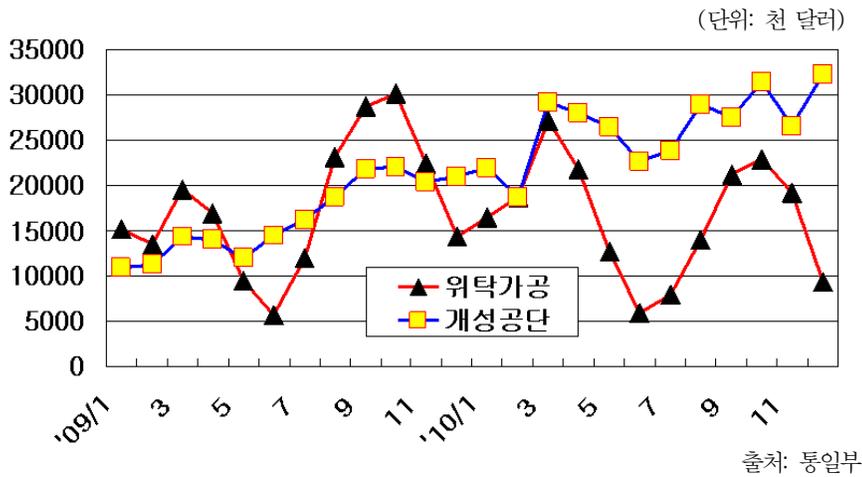
출처: 무역협회

3) 국가 간 경합관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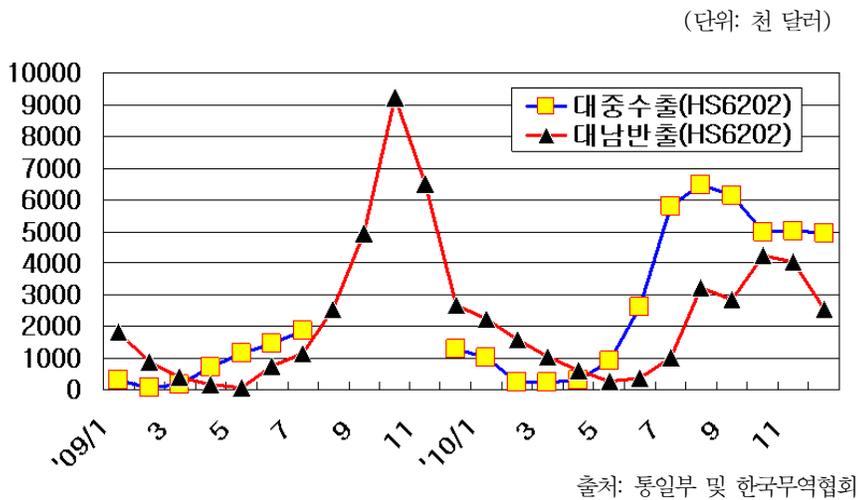
- 천안함 사건(2010. 3)이후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韓中 간 대북경제협력의 상호 대체성은 의류 및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
- 예를 들어 섬유류의 위탁가공은 개성공단과 달리 성장세가 꺾인 반면, 중국은 의류(HS62)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진입(<그림 2>와 <그림 3> 참조).

※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식량 부족, 자원 부족, 임금 상승 등에 직면한 중국이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재평가하고 산동성, 저장성, 장쑤성 등 남방계 기업의 대동북3성 및 대북진출이 확대되면서 北中경협방식이 과거의 일과성 내지 단기적 원조에서 벗어나 자원개발과 인프라 연계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 결정적.

<그림 2> 위탁가공 분야 섬유류의 월별 반입



<그림 3> 북한 의류의 월별 대중수출



4)북한 북부지역의 중국화 심화

○ 중국의 동북3성개발에서 선행선시(先行先試)가 강조된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동북3성 내에서 차지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중국의 12.5계획과 맞물리면서 하락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 북부지역의 친중화도 가속.

- 1)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설립(2005. 8. 16) 이후 백두산관할권의 장춘 이전, 2)연룡도(延龍圖), 연변시 구상 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의 재조정, 3)‘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제도 등에 의한 북한 북부항만(나진·청진·선봉)의 중국 내항화 추진, 4)길림-훈춘 간 고속철 건설, 훈춘의 특별시와 움직임 등 장춘-훈춘 중심의 인프라 구축 등 중국의 對길림성 정책도 일조.

※ 특히 ‘장길도 개발’의 국무원비준(2009. 8. 30)에 의해 훈춘-연길로 형성되었던 중국의 對두만강지역 개발축이 훈춘-장춘길림축으로 전환되면서 외국기업의 관심은 장춘-길림지역으로 집중.

- ‘국내무역화물다국수송(길림성해관공고 2010년 49호)’은 국내무역화물이 국내의 한 통상구에서 출발하여 국외를 경유한 뒤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화물로 간주. 현 단계 그 요건은 ①훈춘 권하통상구에서 출경하여 나진항에서 환적작업을 한 후 상해나 영파항을 통해 입경하며, ②국외 환적은 중국운송 기업이 나진항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용부두에서 진행하고, ③취급화물은 석탄으로, ④길림성 세관에 기등기된 기업으로 제한되며, ⑤중국 국적선을 이용해야 가능하다는 것 등.

□ 맺음말

○ 2010년 북한 김정일과 중국 호금도(胡錦濤)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北中 간 경제협력력이 탄력받은 것은 사실이나 압록강대교의 건설, 북한 북부항만에 대한 진출확대, 공단 건설 등 여러 경제적 프로젝트의 구체적 진행은 북한 선군사상의 극복여부가 변수.

분 석을 하면서 투자는 사후적으로 무역에 포함된다는 실태를 많이 봤다. 전망의 전체 사항은 대량살상무기를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MB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길도 등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등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하는 광물성 지하자원 위주의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광물의 90% 이상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다. 표와 그림을 보면 주목할 품목이 일반 의류 파트이다. HS62번 통계를 잡으면서 원자바오가 반복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월별 데이터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9년의 통계는 하반기를 제외한 상반기 것만 공신력이 있다. 보시면 2010년 하반기에 굉장히 약진한다. 6000만 달러 이상 올라간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집중적으로 뜨기 시작한다. 북중무역 관계가 굉장히 바뀌기 시작한다.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림 1>을 보시면 그동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광물성 자원에 대한 내용을 제하면 다른 내용은 없다. 그런데 2010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HS 62(일반 의류파트) 단위를 보면 대중수출과 대남수출을 비교했을 때 이때까지 남한으로의 유출이 많았다. 그러나 2011년 1월 역전되었다. 중요한 흐름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중국의 역학구조가 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동북3성 지역에는 변화가 없다. 수출에서 비동북3성 지역이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주목할 흐름이다. 현재까지 동북3성이 약진했던 상황을 살펴보니 무연탄과 철광석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흑룡강성과 요령성의 지위는 지속적이다.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 무연탄과 철광석 두 품목의 수출이 북한 수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연탄과 철광석이 흐르는 것을 보면 무연탄은 산둥성이 가장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하북성이 두 번째이다. 천지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현실에서는 길림성이 1위를 유지하였으나 천지무역의 무산광산 채굴권이 (문제가) 생기고 난 후 북한에서 생산된 철광석들이 광둥성이나 산둥성 측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남방계 쪽 철광석 수출의 경우 동북3성을 통해 수출되었으나 비동북3성 지역이 이 수출 광물자원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중시해서 봐야 한다. 특히 광물자원에 있어서의 비동북3성 지역 기

업들의 북한 유입이 관측되고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 흐름은 북한 비동북3성 기업들의 동북3성 진출이 확대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동북3성 중국 기업들이 동북3성 지역의 무역투자와 북한지역에 대한 무역투자를 같이 보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간 경합관계, 한중 간 경합관계가 더 강화될 흐름에 있다는 것이다. 섬유류를 조사해보았다. 개성공단과 위탁가공 섬유류의 흐름이다.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선유로 반입은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선유로 반입은 급격한 하락세이다. 문제는 대표적인 의류 품목 중에서 <그림 3>에 나오는 북한 의류의 HS6202 품목이다. 여성용 오버 코트 같은 것들인데 이 부분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진 시점을 전후로 한중간 역전이 발생하고 그 후 급격하게 중국의 월별 수출이 증가한다. 천안함 사건이 분기점이다. 중국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의류 부문은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여 2011년 1월 역전시켰다.

네 번째로 북한 북부지역에서의 중국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선행선시라는 게 참 재미있는 말이다. 먼저 행하고 먼저 시험을 해보라고 나와 있다. 동북3성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면책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켜주었다. 선행선시라는 이름으로 동북3성 개발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행선시가 문제되는 부분들은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관련해서다. 2005년 9월 중국의 부총리가 장춘에서 새로운 두만강개발 계획을 시작하였다며 ‘장춘 중심’을 선언하였다. 그 후 밀어붙였는데 중국의 대통로 개척 상황이 5년 지났을 때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호 부두를 확보한 정도이다. 자르비노로 나가는 것은 진척되지 않았다. 현재 11. 5(11차 5개년 계획) 계획기간을 이용하여 대통로를 건설하여 중국이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2005년 이후 중국의 1차 타깃은 북한이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주였다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창지투 개발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발전하면서 투자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된 점이다. 이 투자 인센티브는 대통로 개척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해각서(MOU) 베이스를 인정해줄 것인가, 계약 베이스를 인정해줄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면서 창지투 개발의 이름으로써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흐름이 탄력이 붙었으나 여기에는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주는 이권을 챙기기 위

해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20억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는 점은 중국 내부적으로 무언가 필요한 게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11.5 계획기와 창지투가 어떻게 묶여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2005년 장백산 보호개발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연길로부터 백두산을 빼내는 작업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의 장백산 관할권을 개발의 맥락 아래 길림성으로 이양한 것이다. 연길에서는 가장 큰 수입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 동북3성에서 나진항청진항을 거쳐 상해 쪽 중국 남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 중국에서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출입을 처리하지 않고 국내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내항화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다음은 인프라 건설로 길림-훈춘 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훈춘이 개발지역으로 되면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관할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상권을 장악할 그룹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사람이나 기업이 될 것일지, 동북3성 이외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길림성의 사람이 될지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두만강 개발 축을 설정하면서 1998년부터는 훈춘과 연길의 중심 개발축이었다. 이것을 장춘, 길림, 훈춘으로 바꿨다는 것은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장춘으로 유인하는 가장 큰 효과이다. 북한의 통로개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통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들이 장춘과 길림으로 간다. 그러면서 중국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동북3성 인프라와 북한 인프라를 연결시키는 구도 속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북한 주민들의 중국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중요한 화두가 통일이다. 그런데 중국화를 방지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의 동진정책론을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사후 평가할 때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는 일이 중국을 계속 불러들이는 행태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MB정부가 비판하였던 정부와 차별화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압록강 대교 건설, 북한 북부 항만 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선군사상이다. 남쪽이 화답을 하며 중국이 같이 박수를 친다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창지투 개발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선군사상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많이 흔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화되는 작업에서 장애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장애가 생기더라도 비동북3성 지역에 의한 동북3성의 접수,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접수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동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중국기업들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의 여부보다 그 흐름, 방향이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



배종렬 님

전체토론 2

사회자: 권영경

토론자: 남문희, 안병민, 임강택, 임수호, 임을출, 장용훈, 정낙근, 조봉현

사회자: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데 분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주셨다. 북중경협이 구조적으로 심화, 확대해 나가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남북경협에 관해서는 대체적이냐 하는 것을 따질 겨를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해주셨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토론할 주제가 많을 것 같다. 현 정부에서는 북중경협이 북한의 정상 국가화, 개방화로 이끈다는 논리도 이야기하는데 북중경협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의 변수인 김정일의 사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통제할 수 없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나아가서 북한이 국가경제개발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의 부분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선 정낙근 박사의 말씀을 듣고 조봉현·안병민 박사의 말씀을 듣겠다.

정낙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 자리에는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체로 보면 경제 전공자들과 정치·외교 전공자 사이에는 북중관계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보고 주로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정치나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을 크게 경계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전공자들 중심으로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무척 우려하는 주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정치·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통제를 받고 또 개방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은 우리 것이니 남한 주도의 통일로 갈 것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시다시피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 소속 연구소다. 저희가 가장 크게 고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이다. 이것은 어려워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 중관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

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종의 ‘문명’에 속한다. 단순히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을 중국이란 국가의 외교정책으로 보고 논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현실을 보자. 베이징 정부가 통치하는 중국 1국의 인구는 약 14억이다. 이것은 20여 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전체 인구 약 8억 명보다 많다. 중국이 변한다는 것은 국가가 변화를 넘어 문명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변화가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서고금의 특정한 1개 강대국이 미치는 영향력을 뛰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중관계나 북중관계를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틀에 따라 외교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부분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좀 다른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에 대한 위기감이 다른 각도에서 보인다. 단순히 중국의 對북한 영향력의 확대,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동북 4성’化, 식민지化 등으로 보아서는 중국의 對북한 및 對한반도 정책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도전, 곧 기후변화의 위기에 따른 물안보, 식량안보, 자원안보 등의 미래 문제를 풀기 위한 ‘삶의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 자신의 행보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 역사왜곡이니 영토분쟁이니 하는 문제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이익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보면, 중국이란 ‘문명’의 움직임이 너무 쉽게 그리고 아전인수(我田引水)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더 큰 틀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 정치권에 있다 보니 내년 선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현재 배 박사님도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2012년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기이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역량을 발휘한다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위 2012년용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 각국이 다양한 손익 계산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들이 우리의 국내정치 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국제세력들이 한국의 차기 정권 출범에 대해 시간을 기다리며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든 자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뭔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북-중 간 관계가 심화될 경우 우리는 어떠한 전략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길도 계획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단계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현 정부와 보수 일각에서 보이듯이 중국이 북한을 개방하면 통일하는 데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인식 자체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위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북중관계가 긴밀하게 되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 일이 없으니 지금은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하지만, 막상 남북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풀리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도 미리 준비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남북한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면 오히려 다행일 텐데, 이것이 중국과 직접 부딪치는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의 성격과 규모가 달라진다. 국가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과정은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할 것이다. 1990년 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와 동북3성 계획 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2012년 시진핑 시대의 중국 지도부는 1990년대에 북한을 버렸던 세력들과 뿌리를 같이하는 세력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20억 달러 MOU 체결에 관해서 이는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난 정부 시기 우리가 대북 경험을 할 때를 보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의도하여 겨냥한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특혜금융 등을 얻기 위해 한 경우도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식의 대북 진출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에너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북한 투자로 기대되는 이익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 대외 에너지 수입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우선한다.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판시’를 중시한다고들 하는데, 이처럼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니 그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북한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를 모두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를 북한 식민지나 동북4성화니, 북한의 자원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남북관계의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오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을 국가만의 관계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봉현: 북중경제 협력 실태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망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의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중경제 협력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

큼 크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중 경제협력 실태에서 그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실제적인 성사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이미 북한 내 유통도 중국이 거의 장악하였다.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무역과 광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기업들이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을 20여 년 동안 하면서 키워놓았던 인프라에 그냥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보면 10~3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경제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를 손쉽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전망을 보면 북한이 최근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것과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10개년계획을 보면 투자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 있다. 우대조건과 특혜, 국가 차원에서 담보를 해주는 것도 들어 있다.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과 인사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보험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리스크까지 보수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물론 지켜봐야 하지만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투자는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경제개발과 투자협력이 과거와 다른 점은 조직을 구축해나간다는 것이다. 단순히 발로만 투자유치를 하는 발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북한 당국 차원에서 여러 조직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파위가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실제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풍그룹이 작년도에 성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작년도 작업의 실제적인 부분은 대풍그룹이 모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풍그룹 내에서는 작년도 성과가 50억 달러라고 보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단순한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현재 남북관계 때문에 기업들은 거의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중국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북한과 연관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북한에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남북관계는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틈새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가 있다.



조봉현 님



안병민 님

안병민: 배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동북3성 비중이 저하되고, 북단지역의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이 증가한다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도 살펴보고 싶다. 중국의 제철소들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철광석은 석탄산지 바로 옆에 지어졌다. 그런데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 등이 심각하여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화북지역과 기업이 전체의 35% 정도, 화동지역이 32% 정도 등을 차지한다. 소비의 경우 화동 지역은 전체의 40% 정도이다. 중남지역이 25% 정도이다. 내륙지역은 철강이 남고, 연해주 지역은 철강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둥성 등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로 광석을 수입하여 연해주 지역에 생산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최근 중국 기업의 북한지역 진출, 러시아 지역의 진출 패턴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과 같이 진출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길림성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훈춘지역의 ○○을 거치는 노선이 있다. 이 노선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런데 러시아 철도청에서 전부 사들이면서 주체가 러시아 극동의 철도청으로 일원화되어 중국의 사기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 창미와 혜화그룹도 마찬가지이다. 혜화그룹은 부산항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혜화그룹을 등에 업게 된 도문시 정부가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2010년 5월 김정일의 방중으로 다롄의 도

시계획 부분을 보며, 북한의 나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두바이개발계획의 5배는 되는 것처럼 허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어떠한 보험을 드는 것 같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외환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안 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진항 사업과 나진항 4, 5호 부두 등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을출 님



남문희 님

임을출: 조봉현 박사님 말씀에 동의한다. 그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사건 이후 2010년 5월 24일 대북조치가 내려졌다. 많은 대북 투자기업들이 잠시 관망하다가 이 분들이 최근 상황을 점검해보니 중국 단동부터 시작하여 북경지역으로 우리 정부의 눈을 피하여 잠적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거 옮겨가 있다. 북한과의 끈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모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중 하나가 중국과 북한 간에 무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러 과장한다고 오해받으니 더 속이 타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이렇다. 우선 임가공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중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같다. 문제는 임가공 비용이 우리 기업들의 가공임과 비교하여 2달러 정도 올랐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우리 기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위탁가공 기업들은 북한과의 비즈니스는 끝났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이 다른 하나의 포인트인 듯하다. 다음으로 중국정부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진다. 1억 달러 이상의 대북투자는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 국영기

업은 당분간 대북투자를 하지 마라, 중국 공산당 지금을 가지고 대북투자를 하지 마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북투자 하지 마라, 가능하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라, 유치하고 나서 북한에 들어가라고 한다. 단 예외가 있다면 지하자원은 개발비용의 80%를 유지하여 주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투자는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금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위화도는 공단에 들어가려면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중국과 북한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정보이다. 이를 참고하면 북중 경제협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 통일비용을 연구하고 있는데 요즘은 통일 편입으로 초점을 돌린 것 같다. 편입의 극대화 등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 등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북한 땅을 어떻게 접수하여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기에 상당히 착잡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남문희: 현장에 다녀온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보니 북중관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이다. 러시아가 2008년 3호 부두를 확보한 후 흔히 깔고 앉았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행보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50km 다리를 연결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3호 부두 위 컨테이너 30만 톤 규모의 야적장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현지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얘기가 되고 있다. 연변에 있는 일본 기업의 북한 담당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 자위대가 나진항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미 3년 전부터 토론을 끝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자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북측과의 접촉을 통하여 위기를 해결하려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시점에 일본은 북한과 여러 가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 청진항 3, 4호 부두가 명칭까지 바뀌어 모두 중국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3, 4호 부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야적장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거짓 MOU 사건도 있다. (현지에서는 뽕 MOU라고 한다.)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하라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일반 기업들도 이러한 풍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노리고 많은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회의론 중에는 그동안의 과장된 이야기들이 아니더라, 그런데 아니더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두만강을 돌아서 나간다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측에서 러시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꺾그러운 면이 있는 듯 보인다. 자르비노항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고속도로가 두만강을 넘어가는 것은 장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문에서 나진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이 과정이 하나하나 세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동력이 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하자원이다. 이는 많은 분이 말씀해주셨다. 다른 하나가 인건비이다. 턱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나진시가 200위안을 준다. 우리 돈 3만원 수준이다. 동북 길림에서는 1300위안을 준다. 상하이쪽이 2000위안을 준다고 한다. 10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비동북3성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본 바에 따르면 장춘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쪽의 기업들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 중국 남부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 지역이 연결된다면 기존의 운반거리를 12일에서 약 4일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나진항 개발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사회자: 청중(floor)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동용승 박사님과 장용훈 기자님, 그리고 임수호 박사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

동용승: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동북3성 지역에서 비동북3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웠다. 하나 더하면 지난해부터 북한이 식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연탄 수출을 허용하는 상태로 전환하였다. 지하자원의 경우에도 원석을 수출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중국이 북한을 대단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장용훈: 북중 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점이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남북 당국 간 교류를 하지 않거나 쌀과 비료를 주지 않거나 회담을 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경제협력 사업을 해왔던 사업자들이

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경 분리의 지혜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현 정부의 사람들은 곧 사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사과를 먹고 싶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직접 따든가 아니면 사과가 떨어질 곳에서 상처가 나지 않은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든가 둘 중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수호: 북중경협이 확대되니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잘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한국의 전략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위의 논리 또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니 어떻게 해보자 하는 이러한 논리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성근: 오늘 많은 공부를 했다. 북중관계의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최소한 이것이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라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배종렬: 두 가지 정도 더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상지강군(투자유한공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억 달러가 아니라 3억 달러가 핵심이다. 그리고 무산광산 등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지강군’의 광산개발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해야만 20억 달러에 대한 경위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북한전략을 주목하지 말고 중국의 만주전략을 주목해야 한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의 존립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동북 3성 지역의 중심은 요령성이다. 그럼에도 왜 장춘을 정면에 내세웠는가, 총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가 동북3성의 천연자원, 식량자원 그리고 수자원이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만주전략을 하다 보니 북한의 북부 지역과 연동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3가지인데 식량, 천연자원 그리고 물이다.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티베트으로 서부 위구르 지역으로 만주로 가야한다. 하여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을 보는 것은 판을 잘못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자: 감사하다. 3시간이 넘는 토론이었다. 어디서도 토론하지 못했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다.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시각뿐 아니라 판단 근거의 데이터가 된 것 같다.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북중경협에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동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 (끝) 



전체 참여자와 함께_평화재단

NOTES

북·중경협의 실태와 향후 전망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1 비공개 전문가포럼